

광주 제조기업 10곳 중 8곳 '코로나 타격'

광주상의 131개 제조업체 조사, 직·간접 피해 업체 81.7% 달해 매출감소 직접피해 49.5%·사업일정 지연 등 간접피해 50.5%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광주지역 제조기업들의 경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고, 그 중 절반은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광주지역 13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는 81.7%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업체 중 49.5%는 매출 감소와 자금 압박 등 경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50.5%는 사업 추진일정 지연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영업기회

축소와 방역 애로 등 '간접적인 피해' (50.0%)가 더 컸다. 매출과 주문물량 감소, 자금압박 등 '직접적인 피해' (35.7%)보다 간접적인 피해가 더 많았다는 게 광주상의의 설명이다. 이밖에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대기업은 14.3%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은 반대로 부품·자재조달 어려움, 납기 지연 등 '직접적인 피해'가 41.0%로, 노무·인력관리 애로 같은 '간접적인 피해' (40.2%)보다 더 많았다.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중소기업은 18.8%에 불과했다.

수출비중별로는 수출기업은 수출물량 감소, 물류·통관 애로, 해외공장 운영 중단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55.2% 수준에 달했다. 해외전시회가 열리지 못해 거래처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간접적인 피해'도 27.6% 수준이었다.

내수기업은 수출기업과 달리 직접적인 피해보

다 간접적인 피해가 많았다. 노무·인력관리 애로, 영업기회 축소 등 '간접적인 피해'는 45.1%로, 내수업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 (36.6%)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올해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5.6%가 전년 대비 '올해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전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3.7%에 불과했고,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기업은 10.7%에 머물렀다.

실제 응답업체의 66.4%는 영업실적이 '올해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응답해 '목표치 달성·근접할 것' (28.2%), '목표 초과 달성할 것' (5.3%)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올해 매출액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평균 10.0%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묻는 질문에는 53.4%가 '향후 1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2년까지'라고 응답한 비중도 24.4%를 차지했다. 이어 '향후 1년6

개월까지' (14.5%), '향후 6개월까지' (7.6%) 순이었다.

해당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경영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판매·수급처 다양화' (45.0%)와 '정부지원정책 활용' (41.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 '일상 경비예산 축소' (36.6%), '신규사업 발굴' (33.6%), '사업구조조정' (19.1%), '인력구조조정' (15.3%) 등을 꼽았다. 이밖에 '생산·가동률 축소' (14.5%)와 '휴업' (6.7%), '자산매각' (5.3%), '임금 축소' (4.6%) 등 대응책을 내놓기도 하는 등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을 보여줬다.

광주지역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산·납기 지연, 영업기회 축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 감소가 이어져 심각한 자금압박을 겪고 있다"며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한 소비·투자심리 회복이 시급한 것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규제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pb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08.60 (+1.74)
↓ 코스닥	927.00 (-1.68)
↑ 금리(국고채 3년)	0.958 (+0.008)
↓ 환율(USD)	1096.70 (-6.30)

펫팜족 1000만 시대 반려동물 가전이 뜬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관련 가전제품 시장도 확장되고 있다.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층 가전매장에서 '펫밀리아 펫케어룸' (사진)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펫케어룸은 공기순환 시스템을 활용해 반려동물 목욕 후 털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최근 한 예능 방송에서 유명인이 사용해 관심을 끌었다.

저소음과 양면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갑갑함을 줄이면서 항균·살균 상태를 유지시키는 장점이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100만원대 고가 제품임에도 고객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내년 1월8일까지 지원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내년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지원자를 2021년 1월8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팔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해 출하하면 임차료의 40%를, 공영도매시장 출하 때는 60%를 보조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과 농협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공영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등이다. 의무자금 납부, 산지유통종합평가 등 산지활성화 정책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추가) 보조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대강당, 'KJ상생마루' 리뉴얼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 5번째)과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욱·오른쪽 6번째)은 창립 52주년을 맞아 28일 동구 대인동 본점 3층 대강당에 대한 전관공사를 마치고 'KJ상생마루' 현판식을 열었다. 267석을 갖춘 이곳은 임직원 자기계발과 지역인 소통 공간 역할을 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 소상공인 월세 112만원...특·광역시 중 인상률 '최고'

보증부 월세 지난해보다 18만원 ↑ 광주 소상공인 사업체 8만2000곳

지난해 광주 소상공인 월세 인상률이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잠정)를 28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보증금은 광주 2061만원·전남 1968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1년 전 1866만원보다 보증금이 195만원 (10.5%) 올라 2000만원 선을 넘었다. 전남은 40만원 (2.1%)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 보증금은 10번째로 높고, 전남은 13번째를 나타냈다.

전국 평균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 2298만원에 월세 127만원이다.

광주 보증부 월세는 112만원으로, 1년 전(94만원)보다 19.1% (18만원) 올랐다.

이 증가율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전국에서는 제주(34.5%), 충남(19.4%)에 이어 세 번

째로 높았다. 전남 보증부 월세도 81만원에서 87만원으로 7.4% (6만원) 증가했다. 전남 월세는 강원(83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떨어졌다. 광주 무보증부 월세는 지난해 기준 71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6.6%) 내렸다. 전국에서 가장 무보증부 월세가 싼 전남지역은 2만원(-3.6%) 내린 53만원을 나타냈다.

사업장 임차비율은 광주·전남 모두 올랐는데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2번째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비율은 광주

78.2%·전남 64.5%로 전국 평균 79.3%를 밑돌았다. 전남 임차비율은 지난 2018년보다 4.6%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증가 폭은 경북(5.8%포인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컸다. 광주 임차비율은 77.5%에서 78.2%로 소폭 올랐다.

한편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광주 8만2000개·전남 10만8000개로 전국에서 3.0%, 3.9%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광주는 1000개 (1.2%), 전남은 2000개 (1.5%) 사업체가 늘었다.

종사자 수는 광주는 4000명(2.1%) 증가한 18만8000명, 전남은 1만명(4.5%) 늘어난 23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두 지역 종사자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1.9%)을 웃돌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퇴직급여 안내 등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이달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지난 23일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로 퇴직급여 청구 안내 발송을 실시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로 퇴직급여 청구시효인 퇴직일로부터 5년 내 고지를 못 받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사학연금은 기대했다. 연금정보 취약계층은 유치원 교직원과 대학병원 직원, 1년 이하 단기 재직자, 외국인 교직원 등이 있다.

사학연금은 앞으로 퇴직급여 청구 안내뿐만 아니라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자 연금지급정지 등 부문에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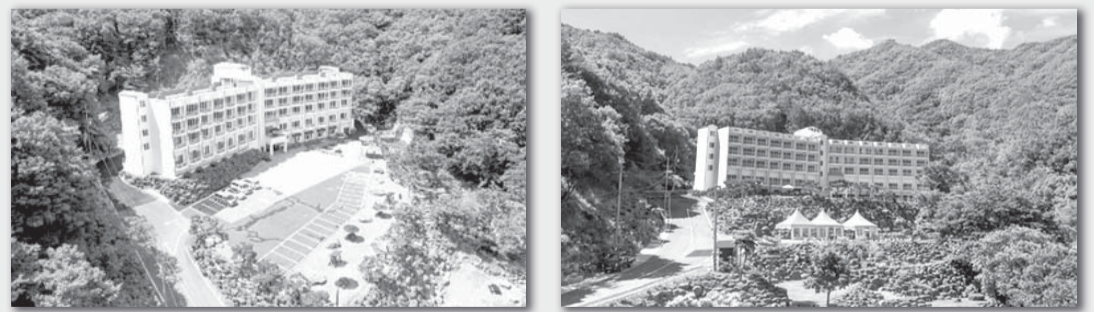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80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